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천 86만원 지원(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주거급여 (서울기준)	교육급여 (고등자녀 1인 기준)
연 2,200 → 2,341만원	연 7 → 14만원 <small>*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원액 938만원 ('25, 기초 1종)</small>	연 632 → 654만원	연 73 → 77만원

+ 4대 바우처 추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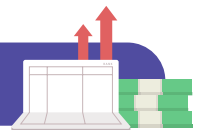
신규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원 (4인가구)	동계 31.4만원 (평균) 하계 5.3만원 (평균)	연 13 → 14만원 (1인)	월 10 → 10.5만원 (1인)

사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A씨 가족(4인)은 생계급여를 지난해보다 141만원 늘어난 2,341만원을 지급받고, 타 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3천 86만원 수준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4대 바우처를 통해서도 농식품 구매, 에너지 구입 등 다양한 추가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 자활성공금 및 희망저축계좌 수령



자립성공 인센티브

자산형성 지원

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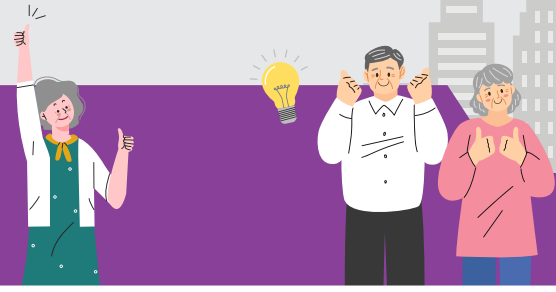
신규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원 탈수급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년 근속시 10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정부매칭 360 → 720만원	+	신규 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원 2.0% 고정금리
--	---	-----------------------------------	---	---

사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인 B씨는 청년자립자금(최대 1,200만원)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B씨는 탈수급 성공으로 자활성공지원금(150만원)을 받고, 그간 저축해오던 희망저축계좌II의 만기 수급액 1,080만원도 수령하여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 노인일자리 103→110만명 지원 역대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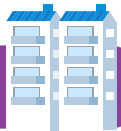
민간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22.5 → 23.5만명 세부 유형별 근무조건 상이	15.1 → 17.1만명 월 76.1만원(10개월)	65.4 → 69.2만명 월 29만 원(11개월)

일상생활의 활력을 원하는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건강	문화	돌봄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0개소 추가	<small>신규</small>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 8천명, 연35만원	응급 호출기 30만대 보급

일반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



주거공간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복지주택 연 1천호 → 3천호 통합공공임대 1,000호 <small>신규</small> 매입임대 1,000호 <small>신규</small>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small>신규</small> 복지주택 단지내 돌봄 복지관 4개소 고령자 복지주택 내 인프라를 활용해 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종합제공

사례



65세 A씨는 매일 오전 3시간씩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월 76만원의 소득을 얻고, 오후에는 노인 특화형 평생교육바우처(연35만원)를 통해 컴퓨터 활용법을 배웁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새로 입주한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 내 노인복지관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A씨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장애인



일 자리를 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63 → 76만명으로 확대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p>고용장려금 63.3 → 75.6만명 (연 인원)</p> <hr/> <p>1인당 월 35~90만원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한 사업주 대상)</p>	<p>취업성공패키지 1.3 → 1.4만명</p> <hr/> <p>상담·취업계획 수립 → 직업 능력개발·향상 → 집중 취업 알선</p>	+	<p>직접일자리 3.2 → 3.4만명</p> <hr/> <p>복지일자리 1.9만개 일반형 1.2만개 특화일자리 0.3만개</p>
---	---	---	--

사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인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에 성공했고, A씨를 채용한 사업주도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윈윈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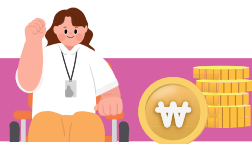
<p>신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시범도입 (2개소)</p>	+	<p>신규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도입 (1개소)</p>
--	---	--

사례



최중증 장애인 B씨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5일간 입원해서 B씨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나 긴급돌봄센터에서 부모님 퇴원시까지 24시간 돌봄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p>8개 → 17개 시도 210 → 410명</p>	<p>모바일로 편리하게 온·오프 라인 신원확인 가능</p>
-----------------------------------	--------------------------------------

사례



장애인 C씨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해 편리하게 장애인 할인을 30% 받은 금액으로 부모님댁에 다녀오기 위한 기차표를 구매하였고, 개인예산제를 활용해 그간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특수체육교사에게 재활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부모·취약아동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25.2만명)

신규

양육비 선지급금

연 240만원

+

아동양육비

연 252 → 연 276만원

사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A 씨는 연 276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았고,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연 240만원 선지급받았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



임산부 상담기관

긴급위탁보호비

아동보호 절차

산모의 안전한 출산 지원,
출산·양육 정보제공

+

신규

월 100만원

+

출생등록제 운영
입양·가정·시설보호

사례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출산을 고민하던 임산부 B씨는 보호출산제도를 안내받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출생등록까지 마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돌봄을 지원받으며, 입양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강화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지원수당

연 480 → 연 600만원

신규

자립지원수당

연 600만원

사례



청소년 쉼터에 보호를 받던 청소년 C씨와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던 D씨는 시설 퇴소 후 월세 부담 등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연 600만원의 퇴소자립수당(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출산·육아 가구



육아부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육아시간을 제공



부모 맞돌봄 지원

근로환경 유연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월150→최대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월200→2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월25%)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신설·확대(월80→1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

신규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사례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간 2,3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소득 걱정없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으며, 회사는 월 1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공백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일반 돌봄

단기 돌봄

긴급 돌봄

아이돌봄 소득요건 완화
+ 정부지원율 확대

신규

단기
육아휴직 신설

신규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신설 65개소

(소득) 기준중위 150% → 200% 이하
(지원율) 소득구간별 +5~10%p

+

연 1회, 2주

+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사례



출장이 잦은 B 부부는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직장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병원 진료와 하원을 지원받고, 하원 이후부터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어 한결 수월하게 직장 생활과 아이 보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더 넓은 주거공간을 제공



임대

분양

대출

신규

든든전세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

신생아특례 소득요건,
우대금리 상향

3만호

+

4.2 → 4.7만호

+

소득요건 1.3 → 2.5억원
추가 자녀당 △0.2→△0.4%p

사례



최근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 C씨는 신생아 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든든전세에 당첨되어 입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저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출산·육아 가구



초등생, 늘봄학교 확산 / 저소득 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늘봄학교

초1 → 초1·2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방과후 최장 20시까지)

**17개 부처와 대학
협력 프로그램 추가**

꿈사다리장학금

2천명 → 3천명
(중1~고3) (초5·6~고3)

(초15, 중25, 고35만원)

영재키움프로젝트

638 → 723명
(초4~고3) (초3~고3)

사례



맞벌이를 하고있는 A씨 부부는 최근 방과후에도 늘봄학교에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는 요일별·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교육·돌봄이 이루어져 만족합니다.

늦은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약국 대폭 확대

HOSPITAL



심야운영 달빛어린이병원 2배
(평일 최소 23시까지 진료)

공공 야간·심야약국 3배
(22시~익일 1시)

45개소 → 93개소

64개 → 220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소아암센터 장비확충

12개소 → 14개소

**경기·강원, 경북, 경남, 충청, 호남
5대 권역별 기관의 장비확충**

사례



갑자기 밤중에 아프다고 우는 아기의 부모인 B씨,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달빛 어린이병원과 심야약국에서 진료·처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대폭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K-패스 할인율

기본 300만원 +
2자녀+100만원
3자녀+200만원
4자녀+300만원

일반 20% →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사례



최근 셋째아이가 태어난 C씨는 기본 전기차보조금에 200만원을 추가할인 받아 전기차 SUV로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역시 셋째아이를 출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대폭 확대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근로장학금

100 → 150만명

+

신규

4.2만명 신설
(연 240만원)

+

14 → 20만명

청년연구자, 연구에 전념하도록 장학금·연구장려금 지원



대통령
장학금

최우수 석·박사생 120 → 215명
(석사 월 150만원, 박사 월 200만원)

신규

저소득·우수 석사생 1,000명
(연 500만원)

R&D

석·박사 연구장려금
2,472 → 5,131명
(석사 월 100만원, 박사 월 210만원)

신규

한국형 Stipend
R&D 참여 대학원생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보장)

사례



· A자연대학에서 R&D과제를 수행중인 석사과정생 B씨는 학생인건비 월 80만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최우수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 월 150만원의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 학업과 연구에 보다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 경력개발-자산형성-주거 도약 뒷받침



청년미래플러스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한시지원

신규

산업 특화
경력개발

개인별 성장로드맵 설계,
현직자 멘토링,
OJT 프로그램 지원

정부 매칭한도
상향

월 40~70만원
→ 70만원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대출
(3.3조원 공급)

12 → 24개월
(월 20만원)

사례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C씨는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만에 5천만원 이상을 모으고,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가의 80%까지 금리 2.2%의 주택드림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생,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일경험

4.8 → 5.8만명

빈일자리 채용 패키지

5.8만명

훈련·취업수당 480.4만원 / 2년 근속 장려금 480만원 / 기술연수 3~6개월

재학중 진로탐색

15 → 18만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50 → 60개교

지역청년 취업·정착 패키지

5개 지역

지역기업 취업 + 주거비용
+ 청년 네트워킹

해외진출

0.5 → 0.6만명

KOICA 해외봉사단,
항공료·생활비·체재비 지원

사례



대학생 A씨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고, 조선업 기업에서 3개월간 일경험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빈일자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거쳐 조선업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 2년간 근속하여 근속 인센티브 480만원도 받고 6개월 기술연수도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예술인, 국립예술단체 무대참여기회 제공 통한 초기경력단계별 지원

청년교육단원

350 → 600명 확대

* 전문가 교육, 국립예술단체 정기·지역공연 참여

교육지원금 월 150만원 지원

청년예술단원

우수 단원들을 청년예술단원으로
선발하여 다양한 공연 개최 (49억원)

140명 대상, 110회 공연 지원

사례



청년성악가 바리톤 B씨는 국립오페라단 청년교육단원 과정에서 성악 전문가 교육 및 국립 오페라단 정기공연 참여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청년예술단원 과정에서 각종 공연 경험을 쌓아 세계 3대 콩쿠르에 우승하는 등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립을 깨고 취업하고 싶은 청년, 사회복귀 지원



미취업 졸업생

신규

6만명

채용박람회, 자격증 교육 등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전국 120개 대학일자리+센터

구직단념청년

0.9 → 1.2만명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프로그램,
월 50만원 참여수당 지원

고립·은둔 청년

1천명

온라인 발굴체계 마련, 정서·심리치료,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사례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을 포기했던 C씨는 집 근처 대학일자리+센터의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장년·경력단절 여성



퇴직을 앞둔 중장년, 재취업과 계속 고용 지원



중장년 내일패키지

6.1 → 6.5만명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폴리텍을 통한 직업훈련 강화

신규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5개과)
뿌리산업 교육센터 신설 (3개소)

중장년 내일센터

35 → 38개소

중장년 인턴제

신규

910명

월 150만원 수당지급

정년도달 후 일자리 유지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전원 재고용 → 일부 재고용시에도 지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최대 3년 지원

사례



인쇄업계 전산관리 부장에서 퇴직한 A씨는 중장년 내일센터 상담을 통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사물인터넷SW)을 이수한 후 IT 중견기업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지원



직업훈련

신규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

최대 4개월간, 월 10만원

일경험

인턴채용 지원금

최대 3개월간, 월 80만원

정규 채용

고용유지장려금

기존 6개월 후, 140만원
+ 신규 12개월 후, 80만원

사례



출산 및 육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던 B씨는 새 직장을 찾던 중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월 10만원 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아 전문성을 쌓고, 새일센터 연계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일·경험을 쌓은 후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금융	배달·택배비	인건비
전환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hr/> 대환대출 (금리 7% 이상 → 4.5%) <hr/>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연 최대 30만원	스마트 기기·SW 보급 <hr/> 0.6 → 1.1만개

사례



제2금융권에서 7.5%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음식점 사장님 A씨는 대환대출 취급은행 금리 4.5% 대출로 전환 받았습니다. 또한 배달비용을 증빙하여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받고 가게에 키오스크 설치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새출발 소상공인, 빛 축소에서 재도전까지 지원



채무조정	폐업	취업 준비	구직
새출발기금 30 → 40조원+α <small>(최대 4.5억원 감면)</small>	점포철거 지원금 <hr/> 최대 250 → 400만원	사전교육수당 60만원 <hr/> 심층교육수당 <small>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small>	취업자 성공수당 190만원 <hr/> 고용주 고용촉진 장려금 <small>1년간, 월 30~60만원</small>

사례



B씨는 점포철거비 400만원까지 지원받아 폐업한 이후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대출 5억원 중 4.5억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최대 72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에 전념했고 유망한 강소기업에 취업하여 성공수당 190만원까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



스케일업 자금	플랫폼 협업	매출기반 확대
전용자금 0.4조원 <small>(1인당 최대 용자 10억원, 사업화자금 2억원 등)</small> <hr/> K-커머슨 0.1조원 <small>(1인당 최대 10억원)</small>	e-커머스 협업 3천개 <small>(1개당 평균 1천만원*) * 정부-플랫폼 1:1 매칭</small>	온누리상품권 5.0 → 역대최대 5.5조원 <hr/> 상권발전기금 (2개소)

사례



C씨는 민간 플랫폼과 정부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TOPS 프로그램에서 컨설팅을 받고 10억원의 용자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 상권발전기금으로 C씨 가게가 있는 상권을 발전시켜 방문객 유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청년창업가, 글로벌 무대 도전 지원

해외 신규마켓 진출

글로벌 대기업 협업

(컨설팅, 마케팅 등)

&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신규

한국형 스테이션-F

(서울 홍대 인근, '25.12월 개소)

+

글로벌협력 R&D

신규

글로벌 팀스

(3년간 최대 12억원)

글로벌 스케일업팀스

(3년간 최대 15억원)

사례



AI 분야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사업화 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글로벌 대기업 △△사의 AI 기술개발 협력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연구소와 공동 R&D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지원

바우처

신규

3년간 약 8억원

(전략 수립부터 마케팅, 회계 등 바우처 형태 지원)

+

정책자금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5억원**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기업당 약 200억원

사례



첨단 제조 분야에서 유망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민간 전문가 디렉팅을 통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오픈바우처를 통한 기술이전 서비스, 시설 용자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고속 성장 이후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수출, 성공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수출바우처

· **4,505개사** 중소 1 ~ 중견**2억원** 지원

컨설팅, 서류대행/현지등록,국제운송 등

· **중소기업 테크서비스바우처** **신규**

(400개社, 최대 5천만원)

+

수출 전용 융자

**2,000개사 이상
최대 30억원** 지원

사례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기 원하는 ICT 서비스 벤처기업 대표 C씨는 수출 바우처를 통한 클라우드 활용 서비스 이용료,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동남아 수출 성공을 발판 삼아 유럽 진출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농민



농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수입안정보험

9 → 15개 품목
가입률 1 → 25%

+

기본형직불금

최초 5% 인상,
비진흥지역
밭 추가 인상

+

전략작물직불제

밀
50 → 100만원/ha
하계 조사료 (옥수수 등)
430 → 500만원/ha

사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A씨는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여 평년소득의 최대 85%까지 보전받았습니다. 또한 기본형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24년 대비 최대 36만원/ha를 추가 지급 받습니다.

귀농 청년, 영농정착 및 창업·주거 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신규

5,000명

정착자금 100만원/월
(3년간)

+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
추가 조성

보육·문화시설 보유

+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신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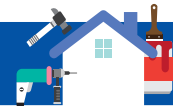
40~80명 청년농이
최대 10년까지 임대

사례



청년농 B씨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되어 초기 정착자금 월 평균 100만원을 3년간 지급받고, 임대주택단지에서 거주하며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경험 축적과 창업자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거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원



농촌공간정비

신규

30개 지구

악취, 오폐수, 소음 등
난개발 시설 철거·이전
(지구당 100억원)

+

빈집 정비

신규

3개 구역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체류형 주택 및 공동시설 개발
(구역당 21억원)

+

체류형 복합단지

신규

3개 단지

체류, 여가, 체험·관광
패키지 지원
(단지당 30억원)

군인·국가유공자



청년 병사·예비군, 의무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병 봉급 인상	생활관 개선	신형 전투피복 도입	예비군 지원 확대
병장 봉급 165 → 205만원 (월 급여 150만원 + 자산형성 지원 55만원)	8~10인실 (공용 화장실·샤워실) ↓ 2~4인실 (단독 화장실·샤워실)	9종 공용피복 ↓ 신규 4종 개인피복 (다기능성·경량 소재)	신규 동미참 훈련참가비 4만원 신규 작계훈련 교통비 6천원

사례



정기휴가를 가며 부모님 선물을 준비하는 A 일병. 군 복무 중 모은 목돈 2,000만원으로 전역 후 미래를 계획하는 B 병장. 합당한 병 봉급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군 간부, 주거 및 복무여건 개선



간부숙소	국민평형 관사	여군	군의관
1인 가구형 풀옵션 간부숙소 불박이장,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TV 등	도심·거점지역에 30평대 관사 전용 85㎡	여성 필수시설 확충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750개소	신규 응급진료보조비 신설 월 최대 150만원

사례



C 하사는 퇴근 후 혼자 휴식할 수 있는 1인 1실 간부숙소가 좋습니다. D 소령은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이 좋은 국민평형 관사에 입주해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만족합니다. '나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휴식 및 재충전하고 임무에 전념합니다.

보훈대상자, 합당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한 보훈급여 확대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3년 연속 5% 인상	연 504 → 540만원	연 576~600 → 612~636만원

사례



군복무 중 전투 훈련에 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던 E씨는 실제 모의 전투훈련중 상이 1급1항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당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후 매월 상이 1급1항 보상금 386.5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